「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3호(2014 가을): 503-527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18 No.3 (2014 Autumn)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 후보자에 대한 정책공약, 자질, 감성적 평가가 유권자의 2010 경남도지사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
지역주의 극복 첫 번째 경남도지사 선거사례

김 정 기

국문요약

정책선거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민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2010년 동시지방선거의 초점이 후보자 자질문제에서 정책공약으로 변하였다. 연구 문제는 2010년 매니페스토 운동에서 제기된 후보자에 대한 정책공약평가와 2002년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서 제기된 후보자 자질요인이 지역주의 정당일체감과 후보자에 대한 감성적 평가인 호감도와 함께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가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알게 된 점은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당일체감, 후보자간 정책공약을 비교 평가한 정책요인, 그리고 후보자간 자질비교와 후보자간 호감도 비교평가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후보자간 상대적 정책공약평가가 후보자에 대한 상대적 자질평가보다 더 큰 직접적인 요인이었다. 2010년 영남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경남도 유권자의 한나라당 정당일체감은 매우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상당수 경남도내 유권자가 무당파로 이동하였으며,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 야권 단일 후보는 상대적인 후보자 자질평가, 정책공약, 호감도에서 무당파로 이동한 경남도 유권자로부터 우세판정을 받았고, 영남지역 최초의 야권 광역단체장인 경남도지사 후보로 당선될 수 있었다.

주제어: 정책선거, 정책공약평가, 후보자 자질

Ⅰ. 서론

2014년 6.4 부산시장선거에서 부산시 공무원으로 행정·정무 부시장 등 거의 모든 요직을 거치고, 부산시장직무대행, 해수부장관의 경력을 갖고 무소속으로 부산시장 후보에 출마한 오거돈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통하여 공식 후보등록 마지막 날(5월16일)에야 밀고 당기는 갈등 끝에 야권 단일후보가 되었다. 따라서 2010년 야권 단일후보였던 무소속 김두관 경남도지사 후보가 영남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야권후보가 당선되는 사례를 2014년 야권 단일 부산시장후보가 되는데 성공한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또 다시 재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불

* 이 논문은 2012~2013년도 창원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러일으켰다. 그러나 야권 단일후보가 된 무소속 오거돈 후보는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와 접전을 벌인 끝에 득표율에서 49.3%:50.7%로 석패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014). 따라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1995년 이후, 영남지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강하게 형성된 한나라당 정당일체감이라는 장벽을 극복하고 영남지역 광역단체장선거에서 야권후보가 승리한 사례는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가 유일한 사례이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김두관 후보는 공식 후보등록에 앞서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통합진보당 강병기 후보와 함께 여론조사와 배심원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서 야권 단일후보를 이루었다. 이 선거에서 무소속 김두관 후보(53.5%)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달곤 후보(46.49%)를 누르고 영남지역 최초로 야권 경남도지사에 당선됐다.

민주화 이후 2000년 전까지 시민단체들은 공명선거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000년 16대 국회의원선거, 2002년 제3회 동시지방선거, 그리고 2004년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시민단체들은 정치인들의 정직성과 도덕성 등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아 정당공천과정에서의 낙천운동과 본 선거과정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였다. 선거과정에서 낙천낙선 운동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점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낙천·낙선운동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권력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존재한다.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운동을 펼친 이유로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이 지역을 연고로 한 중앙당이 중심이 되어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공천과정을 유권자가 참여하는, 유권자가 권한을 갖는,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과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고, 유권자에게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점이, 낙천·낙선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한계로 남았다고 볼 수 있다.

낙천·낙선운동의 대안으로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되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http://www.manifesto.or.kr/)에 의하면, 선거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과정에서의 정책공약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당선자 이후에도 실천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며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후보자와 정당이 제시한 정책공약평가와 공직수행평가를 통하여 유권자는 합리적인 투표를 하고 후보자와 정당은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2010년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http://cafe.naver.com/gnmt/)는, 제5회 6.2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6·2지방선거 기초자치 단체장과 경남도지사 후보의 매니페스토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와 무소속 김두관경남도지사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 대하여 배경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타당성과,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등 구체적 추진계획, 예산을 기준으로 실현가능성을 평가 하였다. 그러나 실제 선거운동과정에서 경남도지사 후보가 제시한 정책이슈는 경남도 지방적 이슈 보다는 4대강 사업, 무상급식, 천안함 사건 등 중앙정부 이슈가 주류를 이루었다.

한나라당 이달곤 경남도지사후보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책학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경력을 갖고 2010년 경남도지사선거에 출마하였다. 한 편 무소속 김두관 후보의 학력은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이 전부였으며, 경력은 남해 고현면 이어리 이장, 재선 남해군수, 행자부장관을 역임하였다. 이로 미루어볼 때 무소속 김두관 경남도지사후보는 학력과 경력 면에서 한나라당 이달곤 경남도지사 후보 보다 매우 미흡하다. 그러나 그는 경남도내 지역에서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밑에서부터 정치인으로 성장하였고, 2002년과 2006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연속 낙선한 경험이 있는 정치인이었다. 반면에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는 출신은 경남 창원이지만 경남지역과는 무관하게 주로 중앙(서울)을 무대로 성장한 학자 겸 정치인이었다.

경남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텃밭이라는 지역주의 정당시스템이 현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 하에서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 한나라당 이달곤 경남도지사 후보를 물리치기에는 객관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구도가 2002년과 2006년 경남도지사 선거구도 보다 무소속 김두관 경남도지사후보에게 유리하였던 점은 야권 단일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여야 간 양자대결구도가 만들어졌다는 점이었다.

본 연구는 2002년 제3회 동시지방서거에서 전개되었던 선출직 공직자의 자질에 관한 낙천·낙선운동, 그리고 2006년과 2010년 제4회 - 제5회 동시지장선거과정의 매니페스토 운동을 계기로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한지의 여부를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토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선거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2010년 경상남도지사 선거에서 경남도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었는지에 주목하고, 직접적으로 투표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미시적 관점의 연구이다. 학력과 경력 면에서 밀리고 있었고, 지역주의 한나라당 정당문화가 팽배한 불리한 상황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나선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2010년 경남도지사에서 승리한 것이 영남지역 최초의 야권 광역자치단체장 탄생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Ⅱ. 선행연구 및 연구문제

경험적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를 가장 일찍이 그리고 활발히 전개한 미국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해 본다.

1. 미국 유권자의 투표행태

경험적 투표선택에 관한 연구로 1948년 콜롬비아대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회학적 집단요소 투표선택 모델(Sociological Group Components' Voting Model)을 들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인종, 연령대, 노조, 1차 집단, 정당일체감, 도농지역 등으로 대통령선거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Lazarsfeld, Berelson, and Gaudet, 1948; Berelson, Lazarsfeld, and McPhee, 1954). 특히 지역과 관련해서 보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도시지역 유권자에 비하여 공화당에 보다 더 투표하였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이슈의 포지션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이슈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변량 로짓을 적용한 결과, 인종, 종교, 계급이 대통령 후보 투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Erikson, Lancaster & Romero, 1989). 2004년 미국 대선에서도 여전히 인종, 종교, 소득계층 간에 후보자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Olson과 Green, 2006).

1960년대 초반까지 미시간대학교 연구자들(Campbell, Converse, Miller, and Stokes, 1960)은 조망적 정책이슈 투표나 조작적 이념 투표는 희박하고 정당일체감에 의한 투표가 강함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1968년 미시간대학교 NES 써베이의 후보자 호감도(feeling thermometer rating)에 대한 새로운 측정치 이후로, 미시간 모델이 도전을 받게 되었다. 각 후보자에 대하여 호감도를 측정하고, 상대적인 호감도를 평가한 것은 후보자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써 투표선택 마지막 결정의 대리요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Page and Jones, 1979; Markus and Converse, 1979; Kenney and Rice, 1988; Erikson, Luttbeg, and Tedin, 1991). 그러나 순수 후보자 요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호감도(feeling thermometer)와 후보자 속성요인인 후보자 자질을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순수 후보자 요인에 대한 상대평가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견해(Lawrence, 1978; Miller, Wattenberg, and Malanchuck, 1986; Erikson, Luttbeg, and Tedin, 1991)와 순수 후보자 요인에 대한 상대평가는 호감도(feeling thermometer)를 완전 매개변수로 하여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견해(Page and Jones, 1979; Markus and Converse, 1979; Kenney and Rice, 1988)로 나누어 진다. 한편 호감도(feeling thermometer)가 투표선택의 대리요인이지만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타이브레이커(tie breaker)의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Brody and Page, 1973; Kelley and Mirer, 1974; Markus and converse, 1979; Rahn, Aldrich, Borgida, and Sullivan, 1990).

Downs(1957)의 민주주의 이론 모델에 의하면, 공공정책이슈들이 궁극적인 투표결정에 있어서 중추적인 요인이다. 미시간대 투표모델이 투표선택에 있어서 정책이슈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기술한 것에 대하여 Key(1966)가 처음으로 도전하였다.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투표변경은 정책이슈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유권자들은 바보가 아니며, 정책이슈에 대한 분명한 대안과 정보가 주어지면, 합리적이며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은 정부업적과 공공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저한 정책이슈라도 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의 정책이슈 포지션이 명확하지 않으면 투표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Page and Brody, 1972). 한편 Downs(1957)의 공간이론에 영향을 받은 정책이슈 요인은 1970년대 이래로 정책선호 지표나 코멘트 보다는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책이슈 포지션간의 상대적인 차이로 측정되어졌다(Page and Jones, 1979; Markus and Converse, 1979). 미시간대 투표모델에 대한 수정주의자들은 단일 정책이슈와 이념을 투표선택 과정에서 강조한다.

Fiorina(1981)는 정책이슈에 의한 투표를 조망적 투표와 회고적 투표로 구분하였다. 조망적 정책이슈 투표에 의하면 유권자는 미래를 위하여 가장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 또는 정당에

투표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회고적 투표는 처벌과 보상의 수단으로 집권여당의 과거 업적에 기초하여 유권자는 투표한다는 것이다. 한편 Carmins와 Stimson(1980)은 높은 수준의 정보가 필요한 베트남 전쟁 참여와 같은 어려운 이슈(hard issue)와 인종차별폐지와 같은 높은 수준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쉬운 이슈로 분류하였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정책이슈와 사회적으로 부각된 이슈들이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에 관하여는 약간의 불일치가 존재하지만, 오늘날 투표행태에 관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반적인 후보자평가 뿐만 아니라 투표선택에 제반 정책이슈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1960년대 초기까지 미국 유권자 개개인의 투표결정에 있어서 정책이슈 요인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유권자들은 정책이슈에 관한 합리적인 고려보다는 후보자의 호소력, 정당 또는 집단적 요소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에 반하여, 정책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책이슈에 기반을 둔 투표가 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강조하는 합리적 유권자 접근이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유권자들은 제반 정책이슈로부터 그들 자신의 제반 효용을 인식하며, 이러한 제반 효용을 어느 후보자가 가장 잘 만들어 낼 것인지에 기초하여 후보자들을 평가하고, 가장 호의적으로 평가된 후보자에게 투표한다고 추정한다(Alvarez, 1993). 즉 유권자들은 정책이슈에 있어서 그들과 가장 가까운 후보자 또는 정당에 투표한다고 추정한다. 로컬 레벨에서도 멤피스 시장선거와 뉴올리언즈 시장선거에서 소수 인종인 백인 유권자들은, 다수 인종인 흑인 정치인들이 다툴 경우, 전략적으로 우호적인 흑인 정치인을 투표로 선택한다고 한다(Liu, 2006). 미국의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종합하면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고, 정당일체감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고,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feeling thermometer)에도 영향을 주고, 투표선택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

지역주의에는 전국적인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새누리당(한나라당)과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지역주의와 개별 후보자의 출신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지역주의로 나눌 수 있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자료(전라북도 도지사 선거)를 분석한 결과, 일부 후보에 대하여 소지역주의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최경호, 2009). 김만흠(2011)에 의하면 한국 선거정치는 지역균열의 정치로 특징 된다.

강원택(2010)은 2010년 서울시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강남 3구와 중랑구 등 네 곳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된 결과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서울시장선거와 분할투표를 하였지만, 향후에 한나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투표권자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당 호감도가 장기적인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2002년 6.13 동시지방선거와 2006년 5.31 동시지방선거에서 (구)창원시 유권자들은 기초단체장 후보자 투표요인으로 정당일체감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주었지만, 현직 기초단체장이 재출마한 경우 직무수행에 대한 회고적 평가도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김정기, 2005; 김정기, 2007). 2010년 서울시장선거에서

김진하(2010)는 현직시장으로서 한나라당 후보로 재출마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재직 시 업적 등 후보자적 요인에 의하여 후보자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에, 야당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현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로 야당 후보를 선택한 경우가 많았고, 이 외에 소득과 연령, 호남 지역주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요 변수였다고 분석하였다. 송건섭·이곤수(2011)은 정당요인이 서울시장선거에서 여전히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 효과는 후보요인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를 가져옴을 확인하였다.

김욱(2012)은 정책선거와 정책투표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여 쟁점투표, 이념투표, 경제투표, 정당일체감에 기초한 투표도 모두 정책투표 안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는 과거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정책과 이슈를 고려하여 투표하였다. 그리고 박상운(2011)도 2010년 광명시장 선거의 집합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정치 이슈와 후보자(인물론) 요인 등이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친 반면 이념, 세대, 생활정치 이슈, 지역주의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송호열(2011)은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요인 중 하나가 인물이지만, 8 가지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같이 후보자가 너무 많으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면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기준에 대하여 정당요인이 후보자 요인보다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이갑윤·이현우(2000)의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김영하(2000)와 조현걸 외(2000)는 후보자 요인이 정당보다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가상준(2004)은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선거결과에는 후보자 요인이, 그리고 야당에게는 정당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성호 외(2007)와 송건섭·이곤수(2011)은 후보자의 이미지 및 자질의 영향 보다는 정책이슈의 요인이 투표의사에 더 중요한 영향을 주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송건섭·이곤수(2011)에 의하면 2010년 6.2 지방선거는 정책공약, 인물요인, 정당 순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는데, 정당요인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후보자 이미지는 영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2010년 6.2 지방선거의 집합 결과 분석에서 김형준(2010)은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였다는 중간평가 성격의 회고적 투표, 야권 후보단일화, 한나라당에 대한 정당혐오도, 정책이슈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김정기(1999)에 의하면 1998년 6.4 동시지방선거에서 현직 자치단체장의 재선요인으로 회고적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후보자의 시정운영능력과 지역주의 정당공천유무가 투표결정요인이었고, 2002년 6.13 동시지방선거에서 마산시와 창원시의 유권자는 정당일체감을 제1순위의 투표지지 요인으로 보았으나, 경남도내 다른 8개 시군의 유권자들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자질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제1순위의 투표지지 근거로 보았다(김정기, 2005). 후보자 자질 가운데 정직성, 도덕성, 그리고 업무추진력을 기초자치단체장이 갖추어야할 중요한 자질로 언급하고 있다.

이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정당일체감, 정책공약, 정책공약 이행을 포함한 회고적 직무수행평가, 후보자의 자질, 지역주의를 비롯한 집단적 유대감, 후보자의 이미지 등이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표선택 요인간의 영향력 크기에 대하여는 단체장선거별 지역별로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연구문제

21세기 한국의 선거운동과정은 낙천·낙선 운동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시민사회운동이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선거과정의 환경변화가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가정하고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구체화 한다.

첫째, 2002년 제3회 동시지방선거와 2000년 16대와 2004년 17대 총선거에서 낙천·낙선운동의 영향으로 영남지역주의 요인 못지않게 후보자 자질 요인에 영향을 받아 유권자의 투표선택이 이루어졌는가? 2010년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사퇴로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가 민주적인 경선과정 없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낙점에 의하여 후보자로 결정되었다. 시대정신(http://blog.daum.net/jh1459/225)에 의하면, 공천과정과 함께 공식선거운동과정에서도 이미 도지사에 당선된 것과 같은 행보로 권위적인 인상을 유권자에게 심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 자질 요인에 관한 정보를 유권자가 제공받게 되었고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둘째,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과정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영향으로, 지역주의 그리고 후보자 자질요인과 더불어,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들을 비교 평가하여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였는가?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전개되었던 총선시민연대의 매니페스토운동의 연장선상에서,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도 경남도지사 후보자들이 내세운 정책공약이 구체성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실현 가능한지의 여부를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지역주의, 후보자 요인과 더불어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들에 대한 비교평가도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두관 후보와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 둘 다 현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공약 이행과 결부된 현직자의 직무수행평가 요인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정당 일체감(호감도)과 더불어 후보자 요인으로 개별 후보 호감도 또는 후보자간 호감도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당호감도와 더불어 후보자간 호감도가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는가? 일반적으로 선거여론조사에서 후보자 호감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조사하고 있으며, 후보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때, 후보자에 대한 상대적인 호감도 평가도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경남도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Ⅲ. 가설설정 및 연구방법

제1회 동시지방선거의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는 후보자간 양자구도를 이루었지만, 보수정당 후보자(민자당 김혁규, 자민연 김용균)간의 대결이었으며, 야권에서는 후보조차 내지 못하였다. 제2회 동시지방선거의 경남도지사 선거부터 제6회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동안에 야권에서도 지속적으로 후보자를 내세웠지만, 영남지역주의 장벽에 막혀서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제외하고

는 모두 새누리당 계열의 보수정당 후보자가 경남지사에 당선되었다. 제5회 동시지방선거의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는 여야 보수와 진보 후보자간 양자구도를 이루었다는 점이 이전 선거와 다른 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하나로 실시된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보수 후보로 출마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김두관 후보에 대한 경상남도 유권자의 투표선택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선행연구와 연구문제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세운다.

1. 가설

1) 연구가설 1

1968년 미시간 서베이 이후, 후보자에 대한 상대적인 호감도(feeling thermometer)를 지지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투표선택 대리요인으로 보는 견해에 따라서 호감도에 관한 가설을 세우면 다음과 같다.

H_1: 무소속 김두관 후보자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가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보다 높으면, 유권자는 김두관 후보를 투표선택한다.

2) 연구가설 2

유권자는 미래를 위하여 가장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 또는 정당에 투표한다는 조망적 정책이슈 투표 시각에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운다.

H_1: 무소속 김두관 후보자가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잘 대변한다고 생각되면, 유권자는 김두관 후보를 투표선택한다.

3) 연구가설 3

공공정책 이슈에 기초하여 선호되는 후보자가 선출직 공직을 수행할 자질이 없다고 인식되면, 후보자의 공공정책 공약에 기반을 둔 유권자의 투표선택은 비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후보자 요인 가운데 후보자의 내적 자질(도덕성, 정직성, 역량, 리더쉽 등)은 정책이슈와 동시에 합리적인 투표선택 요인이라는 견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운다.

H_1: 무소속 김두관 후보자가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질을 갖고 있다고 인식 될수록, 유권자는 김두관 후보자를 투표선택한다.

4) 연구가설 4

미시간 모델에 의하면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은 투표지지 행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 정당일체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는 무당파나 야당에 대한 일체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에 비하여 한나라당 후보에 투표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운다.

H_1: 유권자의 한나라당 정당일체감은 유권자가 경남도지사 후보를 투표선택함에 있어서 야권 단일 후보인 무소속 김두관 후보 투표지지에 네거티브 영향을 준다.

5) 연구가설 5

집단적 요인으로 연령대, 성별, 영호남 지역주의, 경제수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운다.

H_1: 유권자의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무소속 김두관 후보 투표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6) 연구가설 6

H_1: 유권자의 성별 따라서 지지후보 투표선택이 다르다.

7) 연구가설 7

H_1: 고향이 영남권 유권자는 비영남권 유권자에 비하여 한나라당 이달곤 경남지사 후보자를 투표지지하는 경향이 높다.

8) 연구가설 8

H_1: 유권자의 경제수준이 높으면, 보수정당 후보인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를 투표 지지한다.

2. 연구모형 및 변수정의

1) 연구모형

투표선택과 같은 이분적 종속변인의 경우 OLS 회귀분석에서의 정규분포 오차항과 선형관계와 같은 기본적인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상기한 연구가설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투표선택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만들 수 있다.

$$Z_i = \ln\ [P_i/(1-P_i)]$$
$$= \sum \boldsymbol{\beta}_k \mathbf{X}_{ki} + \boldsymbol{e}_i$$
$$= \boldsymbol{\beta}_0 + \boldsymbol{\beta}_1 \mathbf{X}_{ki} + \cdots\cdots + \boldsymbol{\beta}_8 \mathbf{X}_{8i} + \boldsymbol{e}_i$$

$$= \beta_0 + \beta_1(\text{상대적 호감도})_i + \beta_2(\text{상대적 정책공약평가})_i + \beta_3(\text{상대적 후보자 자질평가})_i + \beta_4(\text{정당지지})_i + \beta_5(\text{연령대})_i + \beta_6(\text{성별})_i + \beta_7(\text{영남권출신})_i + \beta_8(\text{경제생활수준})_i + e_i \quad \text{[식 1]}$$

2) 조작적 변수정의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야권 단일 후보인 무소속 김두관 후보자에 대한 투표선택이다. 유권자가 야권 단일 후보인 무소속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하였으면 1로 코딩하였고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를 선택하였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2) 독립변수

① X_1: 상대적 호감도(Comparative Feeling Thermometer)

상대적 호감도는 가장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경남도지사 후보자가 무소속 김두관 후보이면 1, 상대적 호감도에 차이가 없으면 0, 경남도 유권자 개개인이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자에게 더 따뜻한 느낌을 갖으면 -1로 코딩하였다.

② X_2: 상대적 정책공약평가

상대적 정책공약 평가는, 경남도지사 후보자의 정책공약 만을 고려할 때, 경남도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가장 잘 대변하는 후보자가 무소속 김두관 후보이면 1, 정책공약에 후보자간 차이가 없으면 0,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자가 경남도 유권자 개개인의 정책공약을 더 잘 대변하면 -1로 코딩하였다.

③ X_3: 상대적 후보자 자질평가

상대적 후보자 자질평가는, 경남도지사 후보자의 정직성, 도덕성 등 후보자 자질 만을 고려할 때, 경남도 유권자의 입장에서 무소속 김두관 후보를 가장 우수하다고 보면 1, 후보자간 자질에 차이가 없으면 0,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자의 자질이 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면 -1로 코딩하였다.

④ X_4: 정당지지

정당지지는 정당일체감으로 경남도 유권자의 지지정당이 한나라당이면 1, 무당파이면 0, 한나라당 이외의 야당 지지자이면 -1로 코딩하였다.

⑤ X_5: 연령대

유권자의 연령대가 19세를 포함한 20대이면 1, 30대이면 2, 40대이면 3, 50대이면 4, 60대 이상이면 5로 코딩하였다.

⑥ X_6: 성별

유권자가 남성이면 1, 여성이면 0으로 코딩하였다.

⑦ X_7: 영남권출신

유권자가 영남권 출신이면 1, 비영남권 출신이면 0으로 코딩하였다.

⑧ X_8: 경제생활수준

유권자가 자신의 경제수준을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면 1, 중류층이라고 생각하면 2,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면 3으로 코딩하였다.

3. 데이터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써베이연구센터가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5.29-31에 걸쳐서 창원시장은 5.29(금)-30(토) 양일간과 경남도지사 선거는 5.30(토)-31(일) 양일간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경상남도 18개 시군 인명전화번호부를 표집 틀로 사용하였으며, 법정 읍면동별 층화 후에 체계적 무작위표본추출법으로 509명을 조사였다. 이 때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유선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4. 분석방법

우선 2010년 경남도지사선거에 관한 자료를 예비 분석적 차원에서 빈도분석을 통하여, 지지하는 후보자를 선택한 유효 사례와 지지하는 후보자가 미정(72)이거나 무응답(12)인 결측 사례(84)를 분류하고,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를 선택한 유효 사례(n=425)만을 모아서 가설 검정을 위한 데이터 세트로 확정하였다.

개별 가설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관성 유무를 검정하기 위하여 χ^2검정을, 그리고 연관성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에타(η)와 람다(λ)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1. 후보자 지지에 관한 빈도분석

<표 1>은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후보 양자 간 투표지지후보를 밝힌 유권자 빈도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달곤 경남도지사 후보는 지지후보를 밝힌 경남도 유권자의 45.4% 지지를 받고 있었고, 야권단일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김두관 후보는 경남도 유권자의 54.6% 투표선택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자와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무소속 김두관 후보자에게 투표선택의 지지를 밝

힌 425 사례의 투표선택 지지후보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설문응답자 509명 가운데 425명이 경남도지사 후보자간 투표지지후보를 언급하였고 84명은 미정이거나 응답을 거부하였다.

〈표 1〉 2010년 경남도지사선거 양자대결 후보자간 지지후보를 밝힌 유권자

2010년 경남도지사선거 투표선택					
경남지사 후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기호1(한) 이달곤	193	37.9	45.4	45.4
	기호7(무) 김두관	232	45.6	54.6	100.0
	합계	425	83.5	100.0	
결측	미정	72	14.1		
	무응답	12	2.4		
	합계	84	16.5		
합계		509	100.0		

<표 2>는 2010년 경상남도지사 선거의 유권자 개인 관점에서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투표선택과 상대적인 후보자 호감도에 대한 유권자 평가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투표 선택할 지지하는 경남도지사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425명)의 거의 모두인 99.06%(421/425명)가 상대적 후보자 호감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한나라당 이달곤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느낌)가 야권 단일 후보인 무소속 김두관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호감도 보다 상대적으로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경남도 유권자(173/421명)은 41.1%인 반면에 단일 야권 후보자인 무소속 김두관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더 따뜻한 느낌을 갖는다는 유권자(216/421명)은 이 보다 많은 51.3%였다.

〈표 2〉 2010년 경남지사후보자 투표선택과 상대적 후보자 호감도(Feeling Therm.)간 교차분석

교차표					
		상대적 경남도지사 후보 호감도(느낌)			전체
		기호1(한) 이달곤 더 따뜻함	비슷함(같음/모름)	기호7(무) 김두관 더 따뜻함	
경남도지사 투표선택	기호1(한) 이달곤	168	13	10	191
		97.1%	40.6%	4.6%	45.4%
	기호7(무) 김두관	5	19	206	230
		2.9%	59.4%	95.4%	54.6%
전체		173	32	216	421
		100.0%	100.0%	100.0%	100.0%

χ^2=331.789, df=2, p=.000
η=.888
결측 사례=4

무소속 김두관 후보 보다 한나라당 이달곤 경남도지사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따뜻한 느낌을 갖는 유권자(173명)의 97.1%가 이달곤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소속 김두관 후보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따뜻한 느낌을 갖는 유권자(216명)은 95.4%가 김두관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소속 김두관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따뜻한 느낌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호감을 갖는 유권자 보다 1.25배(216명/173명) 더 많았다.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에 차이가 없다는 경남도 유권자는 7.6%(32명)에 불과하였으며, 이 가운데 약 59.4%가 무소속 김두관 후보를 선택하였다. χ^2검증에 의하면 95% 신뢰수준에서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상대적인 호감도평가와 후보자 지지 선택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연관성의 강도(η=.888)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2010년 경남지사후보자 투표선택과 상대적 후보자 자질평가와의 교차분석표

교차표					
		경남도지사 후보자 자질고려 우수후보			전체
		기호1(한) 이달곤 자질이 더 우수함	비슷함 (같음/모름)	기호7(무) 김두관 자질이 더 우수함	
경남도지사 투표선택	기호1(한) 이달곤	174	14	5	193
		97.2%	42.4%	2.4%	45.6%
	기호7(무) 김두관	5	19	206	230
		2.8%	57.6%	97.6%	54.4%
전체		179	33	211	423
		100.0%	100.0%	100.0%	100.0%

χ^2=351.241, df=2, p=.000
η=.911
결측 사례=2

<표 3>은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의 미시적 관점(유권자 개인 관점)에서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투표선택과 경남도 유권자의 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상대적 자질평가와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투표 선택할 후보자를 정한 유권자(425명)의 거의 모두인 99.53%(423명)이 상대적으로 보다 우수한 자질을 갖고 있는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010년 경남도지사 후보자의 정직성, 도덕성 등 후보자 자질 만을 유권자가 고려할 때,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를 무소속 김두관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남도 유권자(179명)은 97.2%(174명)이 이달곤 후보를 투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권 단일 후보인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상대적으로 보다 우수한 자질을 갖고 있다고 본 경남도 유권자(211명)은 97.6%가 무소속 김두관 후보를 투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무소속 김두관 후보의 자질이 상대적으로 보다 우수하다고 본 경남도 유권자가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자의 자질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판단한

유권자에 비하여 54.1(211명) 대 45.9(179명) 비율로 많았다. 후보자 자질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를 유보한 유권자는 7.8%(3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57.6%가 무소속 김두관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χ^2검증에 의하면 95% 신뢰수준에서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상대적인 자질평가와 후보자 투표선택결정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연관성의 강도(η =.911)는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경남도 유권자의 상대적 자질평가가 상대적 후보자 호감도 보다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투표선택결정에 더 큰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959)는 2010년 제5회 6.2 동시지방선거운동 기간에, 지역경제, 도시계획개발, 복지, 환경, 교육, 문화, 행정영역 별로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정책공약을 평가하여 발표하였다. 경남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한나라당 이달곤 경남지사 후보에게 문화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준 반면에, 무소속 김두관 후보에게 환경분야와 행정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주었다.

〈표 4〉 2010년 경남지사후보자 투표선택과 상대적 후보자 정책공약평가와의 교차분석표

교차표					
		경남도지사 정책공약 고려 대변후보			전체
		기호1(한) 이달곤 정책공약이 더 좋음	비슷함 (같음/모름)	기호7(무) 김두관 정책공약이 더 좋음	
경남도지사 투표선택	기호1(한) 이달곤	160	23	3	186
		93.6%	38.3%	1.6%	44.7%
	기호7(무) 김두관	11	37	182	230
		6.4%	61.7%	98.4%	55.3%
전체		171	60	185	416
		100.0%	100.0%	100.0%	100.0%

χ^2=305.050, df=2, p=.000
η=.856
결측 사례=9

<표 4>는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의 미시적 관점(유권자 개인 관점)에서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투표선택결정과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공약에 대한 상대적 평가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표 2>의 상대적 호감도 평가나 <표 3의> 상대적 후보자 자질평가를 한 경남도 유권자수 보다는 약간 작지만,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투표선택결정을 한 97.88%(416/425명)의 경남도 유권자가 경남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정책공약에 대한 상대적 평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한나라당 이달곤 경남도지사 후보의 정책공약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인식한 유권자는 41.1%인 반면에, 야권 단일후보인 무소속 김두관 후보자의 공약이 더 우수하다고 본 유권자는 44.5%로 약간 더 많았다. 한나라당 이달곤 경남도지사 후보자가 제

시한 정책공약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판단한 유권자 가운데 93.6%가 이달곤 후보를 투표선택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권 무소속 김두관 후보의 정책공약이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보다 잘 대변한다고 인식한 유권자 가운데 98.4%가 야권 단일 후보인 무소속 김두관을 투표선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야권 단일 무소속 김두관 경남도지사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공약이 경남도 유권자가 원하는 바를 더 잘 대변한다고 본 유권자가 야권 후보자의 정책공약이 더 잘 대변하고 있다는 유권자 보다 1.08배(185명/171명) 더 많았다. 상대적인 후보자 정책공약평가에서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한 유권자는 14.4%(60명)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61.4%가 무소속 김두관 후보를 투표선택하였다. χ^2검증에 의하면 95% 신뢰수준에서 유권자의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상대적인 후보자 정책공약평가와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투표선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연관성의 강도(η=.856)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경남도 유권자의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상대적 정책공약평가와 후보자 투표선택 간의 연관성 강도는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상대적 후보자 자질평가나 상대적 호감도 평가와 후보자 투표선택 간의 연관성 강도 보다 상대적으로 더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2010년 경남지사후보자 투표선택과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과의 교차분석표

경남도지사 투표선택 * 정당일체감 교차표					
		정당일체감			전체
		야당 지지	무당파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투표선택	기호1(한) 이달곤	8	33	151	192
		8.1%	22.3%	88.3%	45.9%
	기호7(무) 김두관	91	115	20	226
		91.9%	77.7%	11.7%	54.1%
전체		99	148	171	418
		100.0%	100.0%	100.0%	100.0%

χ2=214.025, df=2, p=.000
λ=.682
결측 사례=7

<표 5>는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의 미시적 관점(유권자 개인 관점)에서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투표선택결정과 경남도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사이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본 <표 2>의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평가와 <표 3>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상대적 자질평가에 응답한 경남도 유권자 수 보다는 약간 작지만,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투표선택을 결정한 경남도 유권자의 98.35%(418명/425명)가 자신의 정당일체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투표선택을 결정한 경남도 유권자 가운데 한나라당 지지자가 40.9%인 반면에, 야당 지지자는 이보다 적은 23.7%에 불과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야권 김두관 후보가 불리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경남도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을 세분해 보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88.3%가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경남도 유권자 가운데 야당 지지자의 91.9%는 무소속 김두관 후보자를 투표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야당 지지자의 무소속 김두관 후보에 대한 응집력이 한나라당 지지자의 이달곤 후보에 대한 응집력 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무당파임을 선언한 148명(35.41%)의 경남유권자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77.7%의 유권자가 무소속 김두관 후보를 투표선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과는 기존 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경남도 유권자 가운데 한나라당 지지자가 야당 지지자를 다 합한 유권자 보다 1.73배(171명/99명)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정당일체감(40.9%)이 경남도에서 약화되었다는 점과 늘어난 무당파 경남도 유권자로부터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가 거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χ^2검증에 의하면 95% 신뢰수준에서 경남도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투표선택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연관성의 강도(λ=.682)는 약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투표선택 간의 연관성강도는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상대적 자질평가, 상대적 호감도 평가, 그리고 상대적 정책공약 평가 보다는 훨씬 더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6〉 2002년 이후 경남 도지사후보 별 득표율과 광역비례대표 한나라당 득표율

동시 지방 선거	경남도지사선거 후보별 득표율	새누리당(여당) 정당득표율 (경남도광역비례대표)
제3회(2002)	한나라당 김혁규(74.50%), 새천년민주당 김두관(16.88%), 민주노동당 임수태(8.60%)	74.5%(한나라당)
제4회(2006)	한나라당 김태호(63.12%), 열린우리당 김두관(25.41%), 민주노동당 문성현(10.05%), 국민중심당 김재주(1.40%)	63.8%(한나라당)
제5회(2010)	한나라당 이달곤(46.49%), 무소속 김두관(53.50%)	48.2%(한나라당)
제6회(2014)	새누리당 홍준표(58.85%), 새정치연합 김경수(36.05%), 통합진보당 강병기(5.09%)	59.2%(새누리당)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www.nec.go.kr)

<표 6>은 2002년 이후 경남 도지사후보 별 득표율과 광역비례대표 한나라당 득표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95년(제1회 동시지방선거)과 1998년(제2회 동시지방선거년)에는 광역비례대표 정당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하였으며, 광역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정당지지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경남도에서 한나라당 광역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2002년 74.5%, 2006년 63.8%, 2010년 48.2%로 급격한 하강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59.2%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 편 2010년 경남도지사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김두관 후보는 2002년 3자 대결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새천

년민주당 후보로 16.88%, 2006년 4자 대결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25.41%, 그리고 전략적으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고,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한 2010년 양자 대결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53.50%를 득표하였다. 이 결과는 지역주의 텃밭에 기반한 한나라당(2014년 현재 새누리당)에 대한 경남도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가장 약화된 시기에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한 것이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경남도지사로 당선된 결정적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7〉 2010년 경남지사후보자 투표선택과 집단적 요인간의 연관성 분석

	χ^2 검정			연관성 크기	결측 사례 (무응답)
	χ^2 값	자유도	p		
정당일체감	214.025	2	.000	λ=.682	7
투표선택과 연령대	47.294	4	.000	η=.334	0
투표선택과 성별	1.663	1	.197	λ=.000	0
투표선택과 출신지역	1.058	1	.304	λ=.000	0
지지후보와 경제생활수준	4.697	2	.096	η=.112	48

<표 7>은 경남도 유권자가 투표선택을 결정한 경남도지사 후보자와 집단요인들인 경남도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연령대, 성별, 출신지역(영남출신), 그리고 경제적 계층 간의 연관성 유무와 그 크기를 각각 검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야권의 무소속 김두관 후보는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자에 비하여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투표선택의 지지도가 낮아졌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수화되는 경향으로 인하여 보수 경남도지사 후보인 이달곤 후보를 더 지지하게 되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진보적이기 때문에 진보 후보인 야권 무소속 김두관 후보를 더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χ^2검증에 의하면 95% 신뢰수준에서 경남도 유권자의 연령대와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투표선택결정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연관성의 강도(η=.334)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와 무소속 김두관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투표선택결정과의 연관성은 상대적 후보자 자질평가, 상대적 호감도 평가, 상대적 정책공약 평가, 그리고 정당일체감 보다 훨씬 더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남도 유권자의 성별과 영남출신지역은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투표선택을 결정하는데 95% 신뢰수준에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식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유권자의 영남출신여부에 의한 지역주의 투표행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경남도 유권자의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투표선택결정과 유권자의 경제생활수준이라는 계층간의 연관성 유무검정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한계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연관성의 크기(η=.122)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2010년 경남지사후보자 투표선택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 속 변 수 (무)김두관/(한)이달곤	
	β (표준오차)	β (표준오차)
상수	-1.522(2.388)	.654(1.882)
상대적 호감도(Feeling Therm)	2.431(.680)**	2.560(.664)**
상대적 후보자 정책공약평가	2.802(.815)**	2.613(.779)**
상대적 후보자 자질평가	2.053(.594)**	2.090(.583)**
정당일체감	-1.414(.758)*	-1.204(.677)*
연령대	.065(.432)	.052(.423)
성별	.132(1.006)	.510(.941)
영남출신 유권자	-1.110(1.402)	-.367(1.348)
경제생활수준[a]	1.593(.997)	
-2Log우도	38.646(p=.000)	43.009(p=.000)
Nagelkerke R^2	0.962	0.962
분류정확%	98.1%	98.3%
사례수	n = 360 (결측 65)	n = 405 (결측 20)

주: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이다.
양측검정에서 *p<.05; **p<.01
a: 결측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경제생활수준에 '모른다'는 응답자는 '중간계층'으로 처리함

<표 8>은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김두관 후보와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에 대한 미시적 관점(경남도 유권자 개인 관점)의 투표선택결정에 관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식 1]에 의하여 (무)김두관/(한)이달곤후보에 대한 투표선택결정을 ① X_1: 상대적 호감도(Comparative Feeling Thermometer), ② X_2: 상대적 정책공약평가, ③ X_3: 상대적 후보자 자질평가, ④ X_4: 정당일체감, ⑤ X_5: 연령대, ⑥ X_6: 성별, ⑦ X_7: 영남출신, ⑧ X_8: 경제생활수준에 회귀시킨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Comparative Feeling Thermometer), 상대적 정책공약평가, 상대적 후보자 자질평가, 정당일체감은 95% 신뢰수준에서 경남도지사 후보(무)김두관/(한)이달곤에 대한 투표선택결정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앞에서 분석한 이변량 연관성 분석과도 일치하고 있다.

<표 8>의 2010년 경남도지사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투표선택결정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크기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상대적 정책공약평가, 상대적 호감도, 상대적 후보자 자질평가, 정당일체감 순서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표 2>부터 <표 5>에 걸쳐서 2010년 경남지사후보자 투표선택에 관한 이변량 연관성 분석에서는 상대적 후보자 자질평가, 상대적 호감도, 상대적 정책 공약평가, 그리고 정당일체감 순서로 연관성이 큰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즉 <표 2>부터 <표 5>의 이변량 연관성 분석결과와 <표 8>의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경남도 유권자의 상대적 후보자 자질평가, 상대적 호감도, 상대적 정책공약평가, 정당일체감이 경남도 유권자의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투표선택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이들 영향력의 크기 순서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실제 현실 선거과정에서 모든 요인들이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작동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가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경남도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보다 더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순수 후보자 요인에 대한 상대평가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견해(Lawrence, 1978; Miller, Wattenberg, and Malanchuck, 1986; Erikson, Luttbeg, and Tedin, 1991)와 순수 후보자 요인에 대한 상대평가는 호감도(feeling thermometer)를 매개변수로 하여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견해(Page and Jones, 1979; Markus and Converse, 1979; Kenney and Rice, 1988)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2010년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느낌)이 후보에 대한 상대적 정책공약 평가와의 상관성(r=0.753) 보다는 상대적 자질평가와의 상관성(r=0.819)이 보다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 효과라는 관점에서 2010년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상대적 자질평가가 경남도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 7>에서 집단요인 가운데 경남도 유권자의 연령대와 경제생활수준이 경남도 유권자의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투표선택결정과 비록 작지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표 8>의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95% 신뢰수준에서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투표선택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 경남도 유권자의 영남출신 지역주의, 성별과 같은 집단요인은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유권자의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투표선택결정에 영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국회의원 선거에서 호남지역주의를 극복한 첫 번째 사례가 2014년 7월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후보(순천·곡성)이었다면, 영호남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야권후보로 당선된 것은 2010년 무소속 김두관 경남도지사 후보가 최초의 사례이다.

2002년과 2006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연속 낙선한 김두관 후보는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였고, 2010년 4월에 큰 잡음없이 민주노동당 강병기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였다(http://dami.tistory.com/298). 2010년 6.2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여당 후보인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 보다 경남도 유권자의 투표선택 결정의 직접적 요인인 후보자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상대적 자질비교, 상대적 공약평가에서 모두 우수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일체감은 이명박 행정부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44.4%(http://w3.randr.co.kr/)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투표선택을 결정한 경남도 유권자 가운데 한나라당 지지자가 40.9%인 반면에, 야당 지지자는 이보다 적은 23.7%에 불과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2002년과 2006년 경남도지사 선거에 비하여 2010년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경남도 광역비례대표 득표율(48.2%)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도 야권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정당일체감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2010년 경남도내 한나라당 정당일체감이 가장 약화되었고,

후보 개인요인인 경남도지사로서의 자질, 정책공약, 호감도 면에서 경남도내 무당파 유권자로부터 김두관 무소속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위 판정을 받음으로써, 영남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한나라당 정당의 두터운 장벽을 극복하고, 야권 후보로서 당선될 수 있었다고 본다.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경남도 유권자의 투표선택결정에 관한 분석결과는 미국 투표행태분석에서 미시간 모델에 대한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후보자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평가가 유권자의 최종 투표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유일한 대리요인(Surrogate)이라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2010년 경남도지사 후보자 요인 중 후보자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평가는 후보자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아니라, 단지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감정(affection)에 의한 평가로 직접적인 투표선택 요인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경남도 유권자의 2010년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상대적 자질 평가도 유권자의 최종 투표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 정당일체감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경남도 유권자는 경남도지사 후보자 자질에 관한 정보를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투표선택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최종 투표선택결정에 있어서 경남도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평가에 더하여 타이브레이커의 역할 만을 하였다기보다는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한 상대적 평가, 상대적 호감도 평가와 상대적 자질평가와 함께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또한 장기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정당일체감은 단기 요인들인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 평가, 상대적 자질평가, 상대적 정책평가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를 통하여 경남도 유권자의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투표선택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인과관계 검증은 다음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http://cafe.naver.com/gnmt/)의 정책공약 선거운동이 경남도 유권자의 경남도지사후보에 대한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후보자 요인(후보자질, 호감도)와 더불어,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들을 비교 평가하여 경남도 유권자들은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투표선택을 하였다.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후보자들이 내세운 정책공약이 구체성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실현 가능한지의 여부를 평가하자는 경남매니페스토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경남도지사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들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하여 경남도 유권자로 하여금, 경남도지사 후보의 합리적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였다.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특이한 점은 정당일체감을 제외한 집단적 요인이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권자의 경남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투표선택 결정에 있어서 정당일체감에 의한 지역주의는 존재하였지만, 유권자의 출신지 중심의 지역주의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지지도가 야권 제정당의 지지도를 모두 합한 것 보다 매우 높았다는 점과 정당일체감이 여전히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당일체감을 통한 지역주의 영향이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변량 분석에서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한)이달곤 후보에 대한 투표지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약간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변량 분석에서는 정당일체감에 흡수됨으로써 직

접적인 투표지지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였고, 계층을 나타내는 생활수준도 이변량 연관성 분석 결과와는 달리, 다변량 분석에서는 직접적인 후보지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경남도지사 후보자간 정책공약을 비교 평가한 정책요인, 그리고 후보자간 자질비교와 후보자간 호감도 비교평가가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분석결과는 경남도 유권자의 투표선택 결정은 맹목적인 지역주의에 함몰되어있지 않았으며, 경남도지사 후보자 개인요인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투표선택을 한 것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남도 유권자의 투표선택 결정과정에서 김두관 후보의 전략적인 무소속 경남도지사 후보 출마, 2010년 6월 2일 선거일에 야권 단일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둔 4월 단일화와 매끄러운 단일화 과정, 두 번 연이은 경남도지사 선거의 낙선경력과 3번 째 도전에 대한 동정심, 경남도내에서 이장, 군수 경력과 행자부장관 경력을 통하여 경남도 지역내 풀뿌리민주주의에 기반한 입지전적인 경력에 의하여 제고된 인지도도 무소속 김두관 경남도지사 후보에 대한 경남도 유권자의 긍정적 평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 편으로 2010년 6.2 경남도지사 선거를 앞둔 상황은 4대강 사업, 부자감세, 그리고 천안함사건 논란으로 인한 이명박 정부의 낮은 국정수행지지도, 한나라당의 경남도지사 후보자 공천과정의 불협화음과 한나라당내 친박(친박연대)·친이 계파간 갈등 지속으로 인한 경남도내 한나라당 정당일체감의 이반현상이 있었다. 이러한 여권상황 또한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영남지역주의 한나라당 정당일체감 장벽을 넘어서 무소속 김두관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참고문헌

강원택. (2010). 2010 지방선거에서의 분할투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한국과 국제정치」. 26(4): 1-26.

김만흠. (2011). 지역균열의 정당체제와 선거제도 개편: 개편 논란과 새로운 대안.「한국정치연구」. 20(1): 235-257.

김영하. (2000). 6.4 지방선거에 나타난 대구·경북지역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기준. 한국지방자치학회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욱. (2012). 정책선거 개념의 재정립을 통한 제5회 지방선거의 정책성향평가.「21세기정치학회보」. 22(1): 253-272.

김정기. (2005).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유권자의 직무수행평가와 투표지지: 2002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를 중심으로.「자치행정학보」. 19(1): 211-232.

김정기. (1999).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연구」. 3(1): 269-291.

김정기·강정운. (2007). 기초자치단체장 직무수행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 2006년 5.3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 사례.「사회과학연구」. 14: 137-151.

김진하. (2010). 지방선거의 역사적 의미와 6·2 지방선거 분석.「한국정당학회보」. 9(2): 5-32.

김형준. (2010). 6 · 2 지방선거 분석: 집합자료 결과와 유권자 투표 행태를 중심으로.「국제정치연

구」. 13(2): 203-229

박상운. (2011).「2010년 광명시장 선거와 생활정치: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정치적 태도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및 참여관찰」.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송건섭·이곤수. (2011). 지방선거와 유권자 투표 선택: 종단분석 2002, 2006, 2010 지방선거의 대구·경북지역 유권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한국행정학회.

송근원·정봉성. (2007). 16대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정책입장과 투표행태.「21세기 정치학회보」. 17(1): 45-70.

송호열. (2011). 2010년 충북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지도.「한국사진지리학회지」. 20(3): 27-46.

이곤수·송건섭. (2011). 지방선거의 유권자 투표선택, 정당인가 후보인가?: 6.2 지방선거와 서울시의 사례.「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4): 339-360.

이동윤. (2010). 정책선거와 매니페스토 운동: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가.「동서연구」. 22(2): 101-135.

정성호·이제영. (2007). 후보자의 자질 및 이슈가 투표의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6: 43-79.

조현걸·박창규. (2000) 6.4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분석.「대한정치학회보」. 8(2): 209-245

Alvarez, R. Michael. (1993). Bayesian Voter: The Dynamics of Information and Learning in a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Washington D.C., September 1993.

Brody, Richard A., and Benjamin I. Page. 1973. Indifference, Alienation, and Rational Decision: The Effects of Candidate Evaluations on turnout and the Vote. Public Choice. 15: 1-17.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N.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ampbell, Angus, Phil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Wiley.

Carmines, Edward G. and Stimson, James A. 1981. Issue Evolution, Population Replacement, and Normal Partisan Chang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108-18.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Erikson, Robert S., Norman R. Luttbeg, and Kent L. Tedin. (1991). American Public Opinion: Its Origins, Content, and Impac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Fiorina, Morris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Kelley, Stanley Jr., and Thad W. Mirer. 1974. The Simple Act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572-91.

Kenny, Patrick J. and Rice Tom W. (1988). Presidential Prenomination Preferences and Candidate

Evalua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2: 1309-1319.

Key, V. O., Jr. (1966). The Responsible Electora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Lawrence, David G. (1978). Candidate Orientation, Vote Choice, and the Quality of the American Electorate. Polity. 11:229-246.

Lazarsfeld, Paul, Bernard Berelson, and Helen Gaudet. (1948). The Peoples' Cho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Liu, Baodong. (2006). Whites as a Minority and the New Biracial Coalition in New Orleans and Memphis.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Jan. 2006: 69-76.

Markus, Gregory B. and Converse, Philip E. (1979). A Dynamic Simultaneous Equation Model of Electoral Cho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 1055-70.

Markus, Gregory B. (1982). Political Attitudes during an Election Year: A Report on the 1980 NES Panel Stud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6: 538-60.

Miller, Arthur H., Martin P. Wattenberg, and Oksana Malanchuck. (1986). Schematic Assessments of Presidential Candid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521-540.

Nagelkerke, N. J. D. (1991). A Note on General Definition of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Biometrica. 78: 691-692.

Olson, Laura R. and John C. Green. (2006). Introduction: Gapology and the Presidential Vote.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July 2006: 443-446.

Page, Benjamin I. and Jones, Calvin C. (1979). Reciprocal Effects of Policy Preferences, Party Loyalties and the Vo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 1071-90.

Page, Benjamin I. and Richard A. Brody. (1972). Policy Voting and the Electoral Process: The Vietnam Issu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6:979-95.

Rahn, Wendy M., John H. Aldrich, Eugene Borgida, and John L. Sullivan. (1990). A Social-Cognitive Model of Candidate Appraisal. In Information and Democratic Processes. ed. John A. Ferejohn and James H. Kuklinski.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http://cafe.naver.com/gnmt/ (경남매니페스토 홈페이지)

http://www.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manifesto.or.kr (매니페스토 홈페이지)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565369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900832

http://w3.randr.co.kr (리서치 앤 리서치 홈페이지, 대통령 지지도)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959 (경남매니페스토, 경남도지사후보공약평가)

http://dami.tistory.com/298 (내가 꿈꾸는 세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090304155&code=910110

http://blog.daum.net/jh1459/225 (시대정신: 정치/논평(70))

부록: 6.2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경남도지사) (2010.5.29–30)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여론조사원(???)입니다. 경남도지사와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고 있사오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조사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김정기 교수의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선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19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유권자와의 통화를 의뢰함)
   ① 만19세이상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이상
2. **선생님께서는 6.2 동시지방선거에 투표하실 예정인지요?**
   ①투표할 것임 ②아직 모름 ③투표 안할 것임 (③투표안할 것임의 경우, 감사표시와 함께 조사종료)
3. **경남도지사 후보자의 정직성, 도덕성 등 후보자 자질 만을 고려할 때 누가 더 우수하다고 보시는지요?**
   ①기호1(한) 이달곤 ②기호7(무) 김두관 ⑧비슷함 (같음/모름) ⑨무응답
4. **경남도지사 후보자의 정책공약 만을 고려할 때, 선생님께서 원하는 정책을 보다 잘 대변하는 후보는 누구인지요?**
   ①기호1(한) 이달곤 ②기호7(무) 김두관 ⑧비슷함 (같음/모름) ⑨무응답
5. **선생님에게 보다 더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경남도지사후보는 누구인지요? (무응답인 경우 다시 질문: 조금이라도 더 좋은 느낌을 주는 후보는요?)** ①기호1(한) 이달곤 ②기호7(무) 김두관 ⑧비슷함 (같음/모름) ⑨무응답
6. **내일 선거가 있다면, 경남도지사 후보 중 선생님께서 지지하는 후보는 누구인지요? (무응답 또는 미정인 경우 한 번 더 질문: 조금이라도 더 지지하는 후보는요?)**
   ①기호1(한) 이달곤 ②기호7(무) 김두관 ⑧미정 ⑨무응답
7.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세요?**
   ①한나라당 ②민주당 ③민주노동당 ④자유선진당 ⑤진보신당 ⑥국민참여당 ⑦기타 정당
   ⑧없다(무소속) 9)무응답
8. **선생님의 출신지(고향)은 어느 지역이신지요?**
   ①수도권(강원도 포함) ②충청권 ③호남권 ④영남권 ⑤기타 지역(제주도, 해외포함)
9. **선생님 가정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요?**
   ①상층 ②중간 ③하층 ⑧모름 ⑨무응답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5. **성별** 1) 남 2) 여
16. **응답자의 시군명**: ①창원시 ②마산시 ③진주시 ④진해시 ⑤통영시 ⑥양산시 ⑦사천시 ⑧김해시 ⑨밀양시 ⑩거제시 ⑪의령군 ⑫함안군 ⑬창녕군 ⑭고성군 ⑮하동군 ⑯남해군 ⑰함양군 ⑱산청군 ⑲거창군 ⑳합천군
17. **일련번호**: 전화번호리스트 우측하단의 쪽번호
18. **전화번호**: 전화번호리스트의 전화번호

김정기(金正基): 미국 University of Houston(University Park)에서 1996년 "Utility Functions and Causality in U.S. Presidential Voting Decisions"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창원대학교 행정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투표행태, 정책평가, 계량분석방법론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Policy analyst 계량분석론 (공저, 2003)"과 "사회조사분석론 (편저, 1999)" 등이 있다. 주요 논문은 "Genetic Algorithm for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in a Binary Choice Logistic Regression Model"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창원시 미래전략위원, 창원시 의창구 선거방송토론위원, 경상남도 업무평가위원, 경남지방경찰청 수사전문 자문위원, 창원대학교 서베이연구센터장 및 다문화진흥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과 국제교류원장을 역임하였다(E-Mail : jungkim@changwon.ac.kr).

〈논문접수일: 2014. 10. 13 / 심사개시일: 2014. 10. 28 / 심사완료일: 2014. 11. 06〉

Abstract

The impact of Prospective Public Policy Evaluation, Candidate Quality Evaluation, and Feeling Thermometer toward United Nonpartisan Candidate, DooGwan Kim in 2010 Kyungnam Gubernatorial Voting Decisions: the 1st Kyungnam Gubernatorial Election Case Overcoming Regionalism

Kim, Jung-Ki

Public policy manifesto movement of civic groups and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as so active in 2010 general local election that candidate quality evaluation issues proposed by 2002 party nomination and election defeat movement of civic groups declined. Research question is that to what extent prospective and comparative candidate public policy evaluation and candidate quality evaluation affect 2010 Kyungnam gubernatorial voting decisions, in addition to regionalism-based party identification, feeling thermometer to candidates. The finding is that all of the voting elements mentioned above are valid direct voting determinants in 2010 Kyungnam gubernatorial voting decisions, while comparative candidate policy evaluation is more directly influential than comparative candidate quality evaluation in the gubernatorial election. The number of voters with regionalism-based Grand National party identification in 2010 Kyungnam province somewhat declined, so the united nonpartisan candidate, DooGwan Kim, could win the gubernatorial election due to the support of nonpartisan voters moved away from Grand National Partisanship. 2010 Kyungnam provincial nonpartisan voters' evaluation that DooGwan Kim's public policy pledge, candidate quality and feeling thermometer are superior to Grand National Party gubernatorial candidate, DalGon Lee's caused the former to win the Kyungnam gubernatorial election for the first time in Youngnam Region as an opposition candidate.

Key Words: Manifesto election, prospective policy evaluation, candidate quality